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

Newsletter

2021 / 1월 1주차

2021년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벽걸이 달력 발송 안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한국고전문화연구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한국고전문화연구원

계속된 감염병 사태로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2021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연구원에서 벽걸이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기존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가 변경된 분들을 확인하고자 따로이 안내 전화 드릴 예정입니다. 2021년 달력은 2020년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확인된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축년, 건강과 화평이 넘치는 한 해 지으시길 바랍니다.

- 1 -

동화의 세계 순례(4)

하이디와의 우정, 클라라의 치유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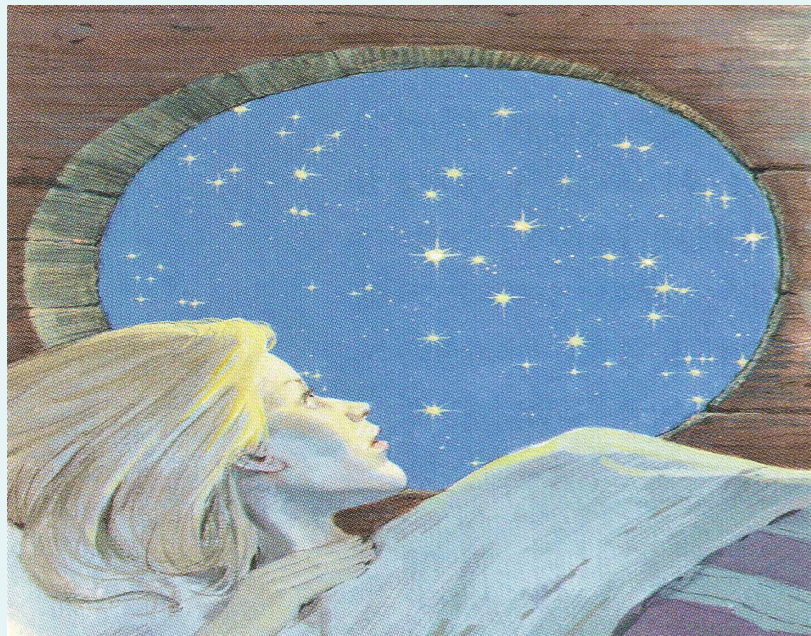
하이디가 사는 알프스 고원으로 가는 클라라(하이디의 또 다른 책, 대교출판사 삽화)

하이디 얘기는, 하이디가 알프스에서 자연을 즐기며 할아버지와 잘 살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순수한 우정이 있고 그 우정은 아름다운 자연에서 치유를 받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동심의 세계에서 전개되는 감동이 어른들의 마음에도 전해진다.

하이디는 본의 아니게 억지로 이모에게 끌려 도시로 갔다가 향수병에 걸리는 소동이 있었으나, 착한 성품을 가진 그 집 사람들의 배려로 다시 알프스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이디는 할아버지와 재회를 하고 알프스 고원에서 마음의 기쁨을 되찾았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집 할머니를 도와주는 일도 다시 시작하였다.

한편 하이디가 머무르는 동안 말 친구 겸 시중을 들었던 주인집의 클라라는 하이디와의 우정이 그리워졌다. 그동안 하이디로부터 알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은 바 있는데다가 특히 클라라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선생님이 알프스로 가서 하이디와 할아버지와 지냈던 일과 함께 “알프스의 산과, 만발한 꽃과, 깊은 정적과, 맑고 상쾌한 공기는 사람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클라라는 하루 빨리 알프스로 가고 싶었다.

공기 좋은 알프스에서 생활하면 클라라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의사선생님의 권유에 온 식구가 찬성하였고 클라라는 알프스로 가서 하이디와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클라라는 알프스 고원에서 첫날을 보내는데, 창밖의 밤하늘에서 쏟아 질 것 같은 무수한 별들을 보며 감탄하였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안락한 침대에서보다 더 편안한 잠을 자게 되었다. 아침에는 산꼭대기서부터 골짜기에 드리워져 있던 옅은 안개가 걷히면서 아름다운 초원의 경치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알프스 초원의 아침은, 온통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온 언덕이 반짝거린다. 이는 야생화가 새벽에 내린 이슬을 머금고 아침햇살에 반짝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영롱한 광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온통 야생화로 뒤 덮힌 알프스 언덕은 아름다움을 넘어서 신비롭다. (필자 촬영)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작가 '요한나 슈피리'는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놀랍도록 세세하게 묘사하였는데,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이는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문장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작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힐링이 된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려고 클라라를 등장 시키지 않았나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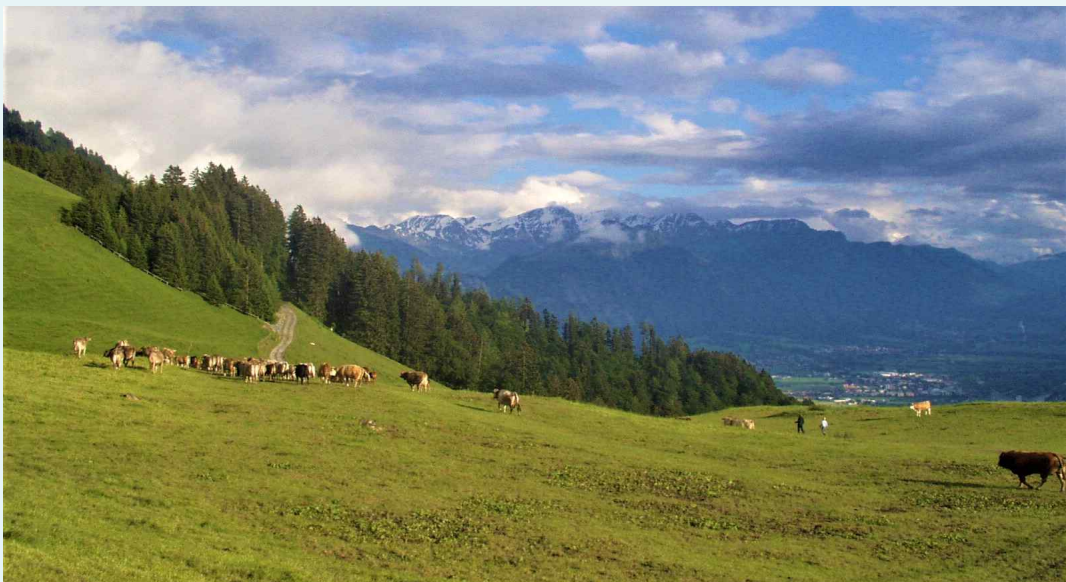
할아버지가 클라라를 부축하며 걷기 연습을 시키는 원문의 삽화

아무튼 클라라는 아름다운 알프스 경치 - 전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에 마음이 맑아지고 초원에 핀 파랑고 노랑고 보랏빛 야생화 등 - 에 매료되어 눈에 띄게 건강해져갔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할아버지와 하이디의 보살핌으로 인해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다. 한발자국도 옮겨 놓지 못했던 클라라가 걸어오는 모습으로 본 가족들의 놀람은 우리에게도 감동이 된다.



아버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광경에 눈을 의심하면서 클라라를 향해 달려왔다.

작가는 이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알프스 고원의 맑은 공기 덕분 이다."라고 말한다. 그 말처럼 하이디 마을에 가보면 아래 사진처럼 건강해질 것 같은 경치가 펼쳐진다.



할아버지 오두막 다락에서 창을 통해 내다본 풍경(필자 촬영)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사모곡이 들려오는 <무척산 모은암> 여덟 번째 이야기 “신화와 역사의 간극 2편”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은하사 대들보 위의 신어 | 물고기의 몸을 벗고 막 용으로 승천하는 순간이다.

게다가 수로왕릉에 보이는 쌍어문은 가락국 때의 그것이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면 수로왕릉의 쌍어문은 대체로 조선 정조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먼저 『정조실록正祖實錄』 가운데 「정조 16년 4월 을사」조의 기록을 보도록 한다.

가락왕릉은 김해부의 성 서쪽 2리쯤 되는 평야 가운데 있습니다. 설치된 물품은 혼유석魂遊石 1좌, 향로석香爐石 1좌, 진생석陳牲石 1좌이고, 능 앞의 짙막한 비석에는 '수로왕릉'이란 네 글자를 써서 거북 머리의 받침돌에 세웠으니, 이는 바로 경자년(1780)에 특별 전교로 인해 고쳐 세운 것입니다. 돌담으로 둘러 쌓았는데, 앞쪽으로 제각祭閣까지 닿습니다.

이 기사에도 쌓어문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쌓어문이 그려진 수로왕릉 정문이나 안향각에 대한 언급은 이전까지 어느 기록에나 단 한 줄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쌓어문은 해당 건물들의 건립과 더불어 나타났다고 봄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1792년(정조16) 이후 왕명에 따라 수로왕릉에 배치된 능감陵監들의 기록을 정리한 『송선전지崇善殿誌』에 따르면 1824년(순조24) 제각 동쪽에 안향각을 신축했다. 그 후 내신루 세 칸이 기울어져 전복될 염려 때문에 1843년(헌종9)에 내신루를 헐고 그 자리에 단층 건물인 외삼문을 옮겨 세워 정문으로 삼았다. 이 외삼문은 1793년(정조17)에 세운 건물이다. 따라서 정문의 쌓어문은 정조 17년의 신축이나 헌종 8년 이전에, 안향각의 쌓어문은 순조 24년에 그려졌다고 미루어진다.

또한 『송선전지』에 따르면 수로왕릉의 정문과 안향각 등을 세울 때 승려들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이들이 쌓어문을 새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수로왕릉 정문의 현판에는 쌓어문 외에도 불교와 밀접한 그림들이 두루 등장하기도 한다. 현액 좌우의 장식판 네 쪽에 그려진 남방 양식의 불탑, 두 마리의 코끼리, 연꽃 봉오리 등이다. 이런 인도 풍물의 그림들은 수로왕비릉에서 전연 찾아지지 않는다. 본래부터 있었던 그림들이라면 필연적으로 수로왕비릉에서부터 출발해야 옳지 않은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신어사상의 영향인지 김해에는 이름조차 '신어神魚'인 산이 존재한다. 해발 630m의 신어산에는 가락국의 설화 속에 피어난 사찰들이 즐비하다. 이 가운데 은하사 대웅전의 대들보에는 아예 신어의 모양을 그려 넣었다. 아쉽지만 이 그림 또한 후대의 산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

끝으로, 가락국 시대에 지어졌다는 사찰과 암자 주변이나 경내에는 왜 그리도 남근석과 여근석이 흔한가? 바로 구지봉의 남근석에서 미루어지듯이 먼저 가락인들의 토착적인 남근숭배사상 탓이다. 여기에 어느 틈엔가 힌두교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락인들은 남근석과 여근석이 즐비한 자리를 골라 사찰과 암자를 세웠으며, 또 사찰과 암자의 경내나 당우堂宇안에 남근석과 여근석을 모신 것이다.

이 돌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힌두교의 한 파인 밀교密敎에서처럼 아예'링감'과'요니'라고 부르고 있으니, 그 개입을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성한 해양 대국이었던 가락국이 말기에 이르러 인도와의 빈번한 교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밀교를 받아들였고, 이를 다시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기존의 남근숭배사상에 접목, 확산시켰던 것이다.

밀교에 대해서는 윤향기 시인이『인도의 마법에 빠지다』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가 있다.

예로부터 천축국인들은 성행위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깨달음을 통하여 신과 일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새 생명(다른 우주)을 탄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의 만남이 성교라고 생각했다. 본래 힌두의 밀교密敎는 개체와 전체의 신비적 합일을 목표로 하던 종교였다. 한때 피의 제식과 섹스의 향연으로 유명했던 밀교경전은 탄트라로 오늘날 요가도 여기서 파생된 것이다.

밀교는 특히 생산력과 결부된 여신女神인 시바신을 주신으로 숭배했으며 밀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단계 술, 생선, 고기, 볶은 쌀, 섹스를 공유해야만 가능했다. 이 공유의 최종 단계인 섹스에 이르러 서로의 늑골을 통과하여 뇌에 이르는 열반, 그때 자유를 얻어야만 비로소 모든 사람과 사물이 평등해진다고 믿었다. 성교를 나누며 서로 절정에 도달했을 때 가장 완벽한 해탈이라고 생각했다.

무려 2천 년의 세월을 거스르는 김해 답사는 언제나 미련과 아쉬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방문지만큼은 분산의 해은암으로 정하는 편이 좋다. 남해로 흘러드는 낙동강의 유장한 흐름을 바라보며 낙조로 붉게 타는 강물에 가슴속의 섭섭함을 씻어 내기 위함이다.

한가해서 아름다운 구경은 길을 잃지 않은 나그네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길을 잃은 나그네는 허둥대며 서두르다 마는 법이다.

이번 회로 2019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어 21개월간 계속된 <천년암자> 연재를 마칩니다. 게재를 허락해주신 유영봉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단행본이 필요하신 분은 연구원 사무국이나 흐름출판사(063-287-1231)로 문의바랍니다. 곧 새로운 글과 함께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